

해남군, 원예농산물 산지 유통 강화 농가 소득 '보탬'

원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 지역 배추, 마늘 등 원예작물 겨울채소 산업 현황 집중 분석 8월 용역 완료 목표 유통 개선

해남군이 배추, 마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유통구조를 산지중심으로 개편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군은 유통구조 개편을 통해 체계 구축 강화로 1차 생산 농가 소득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역 농민회 및 품목별 단체 대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과 법인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원예산업발전

계획수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용역은 변화된 정부정책과 유통환경에 맞춰 기존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전략품목인 배추, 마늘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유통 구조는 생산·소비 구조, 유통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가운데 생산지의 규모화가 부족하고 소비지에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신속한 수집과 분산이 가능한 공영도매시장을 경영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을 경영하

는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중간 유통상인만 이득을 보고 정작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해 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기능 확대와 공영도매시장 경쟁 구도 제도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조기 구축 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용역을 통해 해남군 배추, 마늘 등 겨울채소의 산업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산지 중심의 유통체계를 도입하고 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 등을 마

련해 해남군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용역을 완료하고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최종 수정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승인받을 예정이 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발빠르게 대처해 우리군 대표 원예농산물인 배추, 마늘 등의 비효율적인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생산 농민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남군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겨울채소 산지유통 기반 시설 조성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농촌 왕진버스' 달린다 해남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해남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청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에서는 해남읍을 비롯해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마산, 산이, 문내, 화원 총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9개 지역농협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의료 검진은 농촌 주민의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며, 주요 내용은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돋보기 서비스 등이다.

고령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에 신청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시설이 취약한 농촌 주민들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의료·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이 필요한 검진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연안안전의 날 맞아 현장 점검 목포해양경찰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연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석두어촌체험마을, 무안 홀통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시설물 상태와 현장 근무자 긴급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1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의 날이 포함된 7월 셋째주(15~21일)를 연안안전점검 주간으로 운영해 관내 해수욕장, 연안체험 활동장, 연안사고 위험구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과 16일에는 목포 관내 유치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했으며 물놀이 성수기 기간동안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권오성 목포해경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 및 연안체험 활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익수 및 고립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활동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전남농협, 전북 수박농가 지원 침수피해 복구 작업 실시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전남대표 CEO 등 직원 40여명과 함께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수박농가를 찾아 침수피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CEO는 박종탁 본부장을 비롯해 이광범 센터장(농신보 전남지역보조센터), 박세훈 센터장(NH농협은행 기업금융 RM센터), 박종근 센터장(호남자재유통센터), 박창욱 센터장(호남농산물류센터), 허훈 센터장(호남권친환경농산물류센터)이 참여했으며 범농협 직원 4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지원은 출하를 앞두고 수해를 입은 수박농가의 빠른 영농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사자들은 침수된 농로와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힘들 때일수록 이웃과 정을 나누고 협동하는 것이 농협의 가치이다"며 "전남농협은 전남의 수해예방과 신속지원을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과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8일 연안안전의 날을 맞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석두어촌체험마을, 무안 홀통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시설물 상태를 점검했다. 목포시 제공

해남군,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비

폭염대비 시설 현장점검 등

해남군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 구축해 산사태·하천재해 등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폭염재난 대책을 수립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집중 호우 등 발생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부서·기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장마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장마전 인명피해 우려지역 10개소, 소하천 272개소, 급경사지 81개소 등

에 관리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와 하수도 정비, 배수펌프장 등 각종 수리시설 점검 등도 실시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책도 시행한다.

군은 폭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부서, 2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저감 시설 확대 설치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관내 무더위 쉼터 595개소에 대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6월부터 운영 개시했으며 이에따른 냉방비 지원도 선지급에 냉방기 작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여름철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실시한다

22일부터 8월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부패·감염을 방지하고, 의료폐기물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와 적

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중 최근 미점검업체, 위반업체 등 25개소로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여부 △보관기한 및 4℃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로 코로나

그늘막 29개소, 쿨링포그 8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스마트 그늘막 1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폭염 특보 등 무더위가 본격화되면 도로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노면 변형을 막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도심 시가지 위주로 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풍기 60대, 모자 500개를 배부하며 무더위쉼터에도 생수 2만300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마을방송과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기상특보에 따른 응급복구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 대비체제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의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상 상황을 잘 살피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 황토갯벌랜드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8월18일까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어린이 물놀이장을 다음달 18일까지 32일간 무료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유아 및 소아용 대형풀장을 비롯하여 대형 그늘막, 무더위 쉼터,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물놀이를 즐긴 후 밀키트와 간편식을 현장 구매해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뷰티집 셀프주방'과 카페, 포토존, 기획전시, 레트로게임, 편백족욕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운영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더운 여름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황토갯벌랜드에서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